

# 국힘 전대 레이스 개막...당권 김기현-안철수 2파전

### 3·8 전당대회 후보 등록 시작

### 대표·최고위원 후보들 등록

### 안 "윤석열과 최상의 조합" 강조

### 김 "혼신의 힘 다해 총선 승리"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2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한다.

등록 첫날인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3층에는 직접 후보 등록을 하려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모였다. 등록 접수는 오전 9시부터였지만 '1호 등록'을 노린 후보자들은 아침 일찍부터 대기 줄을 섰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 후보는 "가장 먼저 등록하기 위해서 오전 7시 30분에 왔다"고 말했다. 태영호 최고위원 후보는 의원실 관계자가 오전 8시 10분께 미리 도착해 '2번'을 받았다.

이 밖에 황교안-안철수 당 대표 후보 측, 지성호 청년 최고위원 후보 측이 차례대로 후보 등록 대기 순번을 받았다. 이후 김기현·조정래 당 대표 후보가 당사를 찾았고, 윤상현 당 대표 후보는 대리인을 통해 등록 절차를 마쳤다.

직접 당사를 방문한 후보들은 등록 후 별도로 마련된 연단에서 경연을 발표하고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4번째로 등록을 한 안철수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총선 승리를 위해서 후보 등록을 했다. 경선 승리를 위해서 후보 등록한 것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는 최상의 조합"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여론조사 지지를 상승세에 대해서는 "30여

일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많은 일들로 시합대에 서게 될 것"이라며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우리 당의 대표가 될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고 밝혔다.

'진윤' (진윤석열)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윤안 (윤석열-안철수) 연대는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윤안연대가 없었으면 어떻게 지난번 대선 때 후보 단일화가 됐겠느냐"고 응수했다.

오전 10시 5분께 지지자들과 함께 당사에 도착해 후보로 등록한 김기현 후보는 "혼신의 힘을 바쳐 선당후사 하면서 반드시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나경원 전 의원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나 전 대표와 서로 필요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며 "머지않은 시점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을 지원 사격해온 장재원 의원이 이날 '차기 지도부에서 임명직 당직을 맡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나름 의미 있는 판단을 했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누구에게도 당직을 제안한 바도 없고 약속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안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를 상승세를 두는 "엇치락뒤치락하는 과도기적 현상"이라며 "후보 등록이 마감됨과 동시에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면 김기현이 매우 안정된 추세로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은 3일까지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일 후보들의 자격 기준을 심사하고, 8~9일 책임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10일 본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 접수처로 들어오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후보 등록을 위해 접수처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국방부 전 대변인 "천공 관저 선정때 답사" 대통령 경호처 "전혀 사실아나" 즉각 반박

### 역술인 천공 개입 논란 정치권 비화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위직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다녀갔다는 말을 당시 육군총장한테서 들었다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방부 대변인이 주장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서는 등 천공 의혹 논란이 또 다시 정치권으로 될 전망이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곧 발간될 신간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서 작년 4월 1일 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 행사에서 남영신 당시 육군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대통령직 인수위 고위관계자와 함께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쓴 것으로 2일 파악됐다.

당시는 인수위가 관저를 물색하던 시기다. 부 전 대변인은 "총장이 공관을 관리하는 부사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하니 군 지휘보고체계를 감안할 때 두 사람이 소설을 쓸 리는 만무하다"고 했다.

당시 그는 남 총장의 부탁으로 이런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민간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과 관련해 국방부와 육군총장 공관을 답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박근혜 정부 최순실 사태에 버금가는 국정농단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한동안 잠잠했던 천공 의혹 되살리기에 나섰다.

부 전 대변인의 신간 내용이 알려지자 박승찬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국방위와 운영위를 소집해 해당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공세를 예고했다.

경호처는 이런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천공이 한남동 공관을 방문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김용현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으며, 천공이 한남동 공관을 둘러본 사실이 전혀 없음을 거듭 밝힌다"고 밝혔다. 김용현 처장은 천공과 동행했다는 '인수위 고위관계자'로 지목돼 왔다. /연합뉴스

## 국힘 2월 국회 전세사기 방지·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중점 처리

국민의힘은 2일 회기가 시작된 2월 임시국회에서 전세 사기 방지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의 법안을 중점 처리하기로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전세 사기 방지 6대 법안'과 국민의 생활편의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등을 중점법안으로 정해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하

겠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전세 사기 방지 법안과 관련해선 "반환보증 제도를 악용하는 조직적인 범죄 집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입법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입대인 체납정보 확인 등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액이거나 청구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2020년에서

2022년까지 7400여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며 "이 법안은 14년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제 국민이 받아야 할 보험금은 적은 금액이라도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무엇이 국민을 위한 입법인지, 무엇이 국회의 제대로 된 역할인지는 분명하다.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입법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소폭 하락 36%

### NBS 조사...부정 평가 55%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30일부터 1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6%, 부정 평가는 55%로 나타

났다.

직전 조사인 3주 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1%포인트 내리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 올랐다.

긍정 평가 이유는 '결단력이 있어서'가 37%로 가장 많았고, '공정하고 정의로워서'(24%), '통합하고 포용적이어서'(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 중에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라는 응답이 33%로 가장 많았고, '경험과 능

력이 부족해서'(29%)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지난 조사보다 1%p 오른 36%,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29%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4%였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한 비율은 28%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8.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 SGI서울보증 광주금남로지점 OPEN

2023년 2월 1일, SGI서울보증 광주금남로지점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36 교보빌딩 7층 | ☎ 062-521-0041

꿈을 보증하다 희망을 더하다 SGI서울보증

##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갈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삿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D MODERN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광역시 서구 서향2길3(서향동)